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1호 [루게 제23263호] 주제99 (2010)년 11월 7일 (일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중앙방송창설 65돐에 즈음하여 중앙방송위원회 종업원들의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중앙방송창설 65돐에 즈음하여 중앙방송위원회 종업원들의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방송일군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일찍부터 혁명과 건설에서 총대와 함께 붓대의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근대중시, 언론중시사상을 일관하게 견지해오시면서 우리의 주체언론을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사상정신적 무기로 강화발전시켜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관람자들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조선중앙방송 창설 65돐을 맞는 중앙방송위원회

방송원들과 기자, 편집원들을 비롯한 전체 종업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박도훈동지, 최봉태동지, 태종수동지와 군대의 지휘성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공연 무대에는 시 이야기 《백두산 3대장군과 조선의 방송》, 합창 《4천만은 수령을 노래합니다》, 혼성 4중창과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설화시와 노래 《은혜로운 그 품을 노래합니다》, 녀성 6중창 《어머니 우리 당이 바라다면》, 설화극 《천복이와 만길이 <도화선>》, 복제창 《공격적이다》, 재담 《뽕풀이와 삼너 <초점을 맞추자>》, 혼성민요중창

《사회주의 멋이래네》, 선동이 이야기 《자비를 모르는 계급의 총대가 되자》, 합창시 《백두산 3대대양의 해발이 되리》, 합창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전투적기상이 나래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우리의 주체방성이 걸어진 65성상의 자랑스런 로정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당사상사업의 제 1선에서 보람찬 언론활동을 벌려가고있는 자기들의 크나큰 긍지와 행복상을 격조 높여 노래하였으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함께 하는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살며 투쟁할 방송일군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혁명적열정이 흘러넘치는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 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종업원들이 선군시대에 창조된 군인문화를 적극 따라배워 자기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 우리의 언론인들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당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를 격조높이 구가하고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미더운 언론인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송일군들은 영광의 나날이나 준엄한 시련의 나날이나 혁명의 붓대와 마이크를 여세게 틀어잡고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위하고 강성대국건설 위업실현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그들이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력사적인 시기인 오늘 언론이 끊으면 온 나라가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 기자, 언론인들의 심장이 불타야 천만군민의 정신력이 높이 발양된다고 하시면서 그들앞에 나선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고 대해같은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주신 아버지장군님께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혁명의 붓대와 마이크를 여세게 틀어잡고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진군나팔소리를 높이 울리며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자기들이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출연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청년중시사상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청년운동의 대전성기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 부총리인 강석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봉태동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리용철동지와 당중앙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예술선전대원들은 공연무대에 시방송 《백두산 3대장군의 청년동맹》, 혼성 중창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혼성 2중창 《당을 따라 चल출들이 앞으로》, 극제담 《끝이 없다》, 녀성 2중창과 방창 《매혹과 흥모》, 중창이 이야기 《가고싶어 가는 길》, 무용 《우리 식이 좋아》, 선동이 이야기 《복수세대의 선언》, 남성 3중창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시 이야기 《제일생명》, 소합창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울렸다.

씩씩하고 기백에 넘친 전투적인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여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자랑스런 로정과 조국보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돌격대적역할을 수행하고있는 청년들의 투쟁위훈에 대하여 긍지높이 노래하였으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될 500만 청년전위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여세게 자라고있는 청년전위들의 불굴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혁명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는 흥모의 열정으로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중앙예술선전대원들이 청년들의 특성에 맞고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창작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장 활력있는 전투부대인 청년들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역을 훌륭히 담당하고 있기에 선렬들이 개척한 우리의 주체혁명위업은 굳건히 이어지고있다고 하시면서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이런 미더운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커다란 자랑

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중앙예술선전대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을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의 후계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선전의 일익을 맡고있다고 하시면서 예술창조사업과 공연활동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청년중앙예술선전대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공연을 친히 보아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아버지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모든 청년들을 수령결사옹위투사들로, 강성대국건설의 돌격대로 훌륭히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정치정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희천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을 지원하는데서 모범을 보인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희천발전소건설에 대한 전국적인 지원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깊이 새긴 사업성체육단 부원 김경복은 여러차례에 걸쳐 군인건설자들을 원호함으로써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창조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데 기여하였다.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는 평양시야외관리국 산하단위 기지장 김권희는 조국이 기억하는 참된 애국자로 살려는 일념을 안고 건설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모든것을

바치고있다. 대성지도국 무역집배 선원 림윤식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을 함께 일떠세우는 심정으로 발전소건설을 통이 크게 지원하였으며 라선시 신흥인민병원의 의사 남진, 라선자동차사업소 로동자 김태순도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평양고려호텔 로동자 신혜옥은 성의껏 마련한 원호품들을 가지고 강성대국건설의 전초선인 희천으로 달려가 군인건설자들의 로력투쟁을 고무해주었다. 평양메기랑집 로동자 한정화는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면서 공사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물자들을 마련하여 발전소건설

장에 보내주었으며 만경대승용차사업소 운전사들인 한광덕, 장철근, 지영남도 건설을 물심방면으로 도와주었다. 철도성 정치국 문서원 장민순, 수송지휘국 분석통계원 박인옥,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산하단위 기사 장국현은 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지원사업을 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감격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희천발전소건설을 앞당겨 끝낼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지원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릴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비약의 폭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3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해놓은 일에 대하여 대단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리고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분투한 병사들

의 위훈을 조국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장에서 동행하시였다. 《참고소식》, 로씨야의 이파르-따쓰통신, 케스프주체사상연구 및 구원소조와 핵무산체스프조선친선협회 인터넷 공동홈페이지 《조선-백두산》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 10215군부대 지휘부

를 시찰하신 소식을 10월 26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 10215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군인들의 훈련을 보시고 모든 지휘관, 병사들이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제도를 목숨바쳐 사수할 불타는 결의를 안고 달려진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조명록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가 장기간 심장병으로 주제 99 (2010)년 11월 6일 10시 30분 82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는것을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알린다.

조명록동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우이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헌생을 바친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저명한 활동가이다.

조명록동지는 생애의 전기간 일편단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빈농민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망국노의 피눈물나는 생활을 강요당하던 조명록동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품속에서 유능한 군사정치일군으로 자라나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조명록동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손에 무기를 잡고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웠으며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 인민군 비행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공군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었다.

조명록동지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하여 우리 혁명앞에 전대미문의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중책을 지니고 인민군대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선군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키며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갔는데 특출한 공헌을 하였다.

조명록동지는 우리 인민군대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명군체계가 확고히 서고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이 팍 차넘치는 수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기 위하여 헌신분투함으로써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조명록동지는 우리 당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미제에 의하여 분열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우리 당과 공화국의 대외적전위를 높이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조명록동지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투철한 혁명적원칙성과 고지식한 품성으로 하여 우리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지금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탁월한 활동가를 잃은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다.

조명록동지의 서거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

조명록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그의 업적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제 99 (2010)년 11월 6일

조명록동지의 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인 조선인민군 차수 조명록동지는 주제 17 (1928)년 7월 12일 함경북도 연사군 빈농민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조명록동지는 조국이 해방된 후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유능한 군사정치일군으로 자라나 당과 국가, 군대의 중요직책에서 오래 동안 사업하였다.

동지는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인민군 비행사로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전후 인민군 비행부대의 대대장, 편대장, 사단장, 공군사령부 참모장, 사령관의 직책들을 력임하면서 공군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동지는 주제 84 (1995)년 10월부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주제 87 (1998)년 9월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중책을 지니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무적의 군력으로 확고히 담보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조명록동지는 주제 64 (1975)년 11월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주제 69 (1980)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주제 99 (2010)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었으며 주제 66 (1977)년 11월 최고인민회의의 제6기대부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사업하였다.

동지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특출한 공로로 하여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과 공화국영웅, 로력영웅칭호를 수여 받았으며 국가훈장 제1급과 자유

독립훈장 제1급을 비롯한 많은 훈장과 메달을 받았다.

조명록동지는 주제 84 (1995)년 10월 조선인민군 차수 칭호를 수여받았다.

조명록동지는 주제 99 (2010)년 11월 6일 심장병으로 서거하였다.

조명록동지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당의 선군령도에 무한히 충실하였다.

조명록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이룩한 그의 고귀한 투쟁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쿠바공화국 내각 수상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아바나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쿠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

나는 지난 4일 귀국에서 뜻밖에 일어난 비행기추락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는 가슴아픈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합니다.

나는 당신과 귀국정부가 이번 사고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99 (2010)년 11월 6일 평양

쿠바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대표단 귀국

【평양 1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영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군사대표단이 쿠바공화국 방문을 마치고 6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김택구 인민무력부 부부장, 한동근, 김철 조선인민군 상장과 호세 마누엘 갈레고 문

파노 주조 쿠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 페오나르도 베레스 메사 대사관 무관, 손연봉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국방부관이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1. 고 조명록동지의 장의식을 국장으로 한다.
2. 고 조명록동지의 국가장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김정일

위원 김정은

김영남	리명수	리태섭	오일정
최영호	김철만	김송철	김정임
김영춘	리영설	조성환	채희정
전병호	리종산	박광철	리재일
김국태	전제선	윤경서	리룡하
김기남	리하일	양인국	박봉주
최태복	정창렬	리히수	전일춘
양형섭	김윤심	리철	김동일
강석주	한동근	오철산	한광상
변영립	조경철	손칭남	정명학
리용무	박재경	황홍식	김동이
주상성	김우호	김장수	강양모
홍석형	김택구	리영민	리만건
김양건	최세판	박영배	로배덕
김영일	전창복	박영식	박태덕
박도춘	오금철	김수길	주영식
최룡해	김명환	김경찬	오수용
장성택	김철	김동화	곽범기
주규창	김수학	최재복	김희택
리태남	김인식	김영남	김경만
김락희	심상대	리정배	백계룡
태종평	동영일	주동철	박의춘
김평해	리병삼	김승국	김형식
우동측	김성덕	주승남	김태봉
김정순	리창한	정운학	전길수
김창섭	로홍세	차명성	리무영
문경덕	리두성	현병무	안정수
김명국	임종춘	김도운	리용진
김경옥	강표영	김승호	류영섭
김원홍	김형룡	방춘산	박명철
정명도	김격식	손철주	장철
리병철	리용환	전하철	김기룡
최부일	김춘삼	로두철	김병호
김영철	리영길	박수길	차승수
윤정린	한창순	조병주	김정숙
최상려	현영철	한광복	리용철
최경성	양동훈	김영대	김병률
오국렬	리봉죽	류미영	장병규
백세봉	박승원	리영수	량만길
현철해	리춘일	최희정	성자립

고 조명록동지의 국가장의위원회에서

고 조명록동지의 영구는 중앙로동자회관에 안치되 8일 10시부터 11월 9일 18시까지 맞이 하였다.

고인과 영결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조객들은 11월 11일 10일 9시에 고인의 영구를 발인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재일동포청년축전 참가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일본 도쿄

재일동포청년축전 참가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재일동포들과 조국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서 열리는 재일동포청년축전에 즈음하여 축전참가자들과 전체 동포청년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조국방을 전감시키는 민족적대장사로 온 겨레가 크나큰 긍지와 환희에 넘쳐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동포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대한 축전을 진행하는것은 총련애국위업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난 기간 총련의 새 세대 일군들과 애국적동포청년들은 내외반동들의 탄압과 방해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엄혹한 환경에서도 주체의 신념을 간직하고 각급 조직을 튼튼히 꾸리였으며 광범한 동포청년들을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묶어세우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총련이 공화국의 창다운 해외동포단체로서의 존엄과 기상을 떨치며 동포군중속에 뿌리박은 힘있는 조직으로 강화발전되어온데는 새 세대 일군들과 동포청년들의 무한한 헌신성과 고귀한 노력의 깃들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총련의 새 세대 일군들과 동포청년들이 자기 수령, 자기 조국, 자기 조직에 대한 뜨거운 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총련애국사업과 재일조선인운동을 세기와 세대를 이어 즐기게 전진시켜나가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재일동포청년들은 총련조직과 동포사회의 미래를 책임진 주인공이며

조정, 청상회, 류학동은 새 세기 애국애족운동을 앞장에서 개척해나가는 미려한 선봉대입니다.

총련의 새 세대 단체들은 각급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어 동포청년들이 자기 수령, 자기 조국에 충실하였던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넋이 깃든 애국전통과 애국정신을 변함 없이 대를 이어 곳곳이 이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 세대 단체들은 동포청년들이 있는 지역마다에 자기 조직을 정연하게 꾸리고 더 많은 동포청년들을 묶어세우며 새 세대들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합심하게 조직전개하여 동포사회가 언제나 청년들의 애국적열의와 민족적정서로 흥성거리게 하여야 합니다.

재일동포청년들은 어머니조국의 부강번영과 자주적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일본인민들과의 우호친선을 두터이 하는데 이바지하는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합니다.

오늘 주체혁명위업은 끝없이 밝고 양양한 력사의 새시대를 맞이하였으며 내 나라, 내 조국과 더불어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재일동포청년축전에 해외조선청년의 슬기와 열정을 남김없이 분출시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며 총련애국사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뜻깊은 전원의 계기로 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제 99 (2010)년 11월 7일 평양

주체체육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들을 더 많이

김형직 사범대학 체육학부에서

우리 당의 체육정책 관철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있는 일군들과 교육자, 연구자, 우수한 체육인들 가운데는 김형직사범대학 체육학부 졸업생들이 많다. 그들속에는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로령영웅,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의 영예를 지닌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렇듯 교육사업과 나라의 체육발전에 적극 이바지한 공지와 자랑스러운 주체체육발전의 배일을 위하여, 자라나는 세 세대들을 당이 바라는 재능있는 체육인재들로 더욱 튼튼히 키우기 위하여 불같은 열정을 바쳐가는 학부일군들과 교육자들의 헌신의 자욱들이 오늘날 헤맬없는 교정에 소중히 새겨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이 교육사업에서 이룩한 자랑스런 성과들에는 후대교육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온 우리 교육일군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여 있습니다.」

지금 이곳 학생들의 배움의 열의는 매우 높다. 귀중한 학창시절에 지식의 랍을 더 높이 쌓지 않는다면, 더 높은 현실의 요구에 맞는 특출한 실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졸업 후 아무리 욕망이 커도 애국

의 길, 보양의 길에서 큰걸음을 내걸을 수 없다는 자각이 학생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체육분야의 전문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당과 수령의 위대성,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의 귀중함을 인식시켜 줄기 위하여 애써온 학부일군들과 교원들의 성실한 노력이 낳은 열매이기도 하다.

대학적으로 주목을 끌고있는 체육학부 교직원, 학생들의 예술소조활동을 놓고보자.

최근년간 대학적으로 진행된 학부별예술소조경연에서 체육학부는 언제나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체육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부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출연하는 이례로운 예술소조공연은 매년 관중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학부자체의 힘으로 필요한 설비들과 기구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활발히 벌려온 예술소조활동은 단순히 교직원, 학생들의 문화정서를 풍만하게 꽃피웠는데 의의가 있지 않았다. 이 과정이 학생교육에서 나타낸 실효는 매우 컸다.

수려의 우습함과 금메달들을 번쩍이며 배우신위인들을 높이 이끈 크나큰 민족적공기와 자부심,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배움의 활무대에서 마음껏 내달리는 기쁨을 다채로운 종목들에 담아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미래의 체육교육자로, 전도유망한 체육인재들로 튼튼히 준비해가는 자기들의 행복한 생활을 실감있게 펼쳐가는 예술소조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가슴속에 차나친 총정과 보답의 한마음은 얼마나 뜨거웠던가.

이렇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으면서 학부에서는 학부장 백석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앞장에서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원들의 자질을 부쩍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전력의 불바람도 세차게 일고 있다.

교원의 실력이나 학생들의 실력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모든 교원들이 높은 정치적견과 체육전문성, 교육실무적지질을 갖추고 교수방법과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 열정적인 학습과 완강한 실천의 날과 달을 이어왔다. 이 나날에 체육리론강좌 교원모두가 10월8일모범교수자, 새 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들로 자라났고 학부의 모든 전공 및 기조과목교수에 필요한 다매체전집물들이 완성되었다.

10여년의 교과서들이 새로 나오고 여러 과목들이 개척되었으며 뜻깊은 올해에 강좌장 김혁동무가 전국적인 교원양성부문 대학원격교수안건연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성과도 이룩되었다. 또한 체육과학연구소, 체육과학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축구, 농구, 배구, 탁구, 승구, 육상을 비롯한 모든 전공과목교육에 의의가 있는 가치있는 체육자료들을 마련해 놓고 교수사업에 적극 리용하고 있다.

학부에서는 일군들이 앞장에서서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더욱 좋게 개선하기 위한 창조적노력을 발휘 지어올려 교실들과 사무실, 복도 등을 일신시켰다. 또한 자체의 힘으로 학부와 교실들에 전기교육, 다매체교육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는 설비들과 기구들도 그흔히 갖추어놓았다.

김철주사범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나가 진행된 학부학생들의 교육실습과정을 통하여 자료 등을 가지고 사범교육의 실효를 보장하는것과 동시에 그들의 전문성능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력을 더욱 짜고들어 해마다 좋은 경기성적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학부학생들이 평시에 만나보는 높은 체육기술과 집

단주의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뜻깊은 올해의 9월5일상 전국대학생체육경대회 축구(남자), 배구(여자), 바드민턴(남자, 여자), 육상(여자), 씨름경기를 비롯하여 출전한 모든 종목경기들에서 승리의 금메달을 쟁취한것은 실로 자랑할만 한것이다.

당이 안겨준 직업적혁명의 영예를 깨어난 랑성과 불같은 열정으로 뒹어온 학부일군들과 교원들의 손길이 떠날수록 최극년에도 김일성청년예상수상자, 대학생과학탐구상 수상자가 배출된것을 비롯하여 교육사업성과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교육국가, 인재대국으로 빛내이자!」

시장을 무한히 격동시키는 당의 전투적소스가 오늘날 교정을 세차게 들끓게 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크나큰 감격과 기쁨에 넘쳐 새로운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가는 학부의 일군들과 교육자들의 다함없는 애국충정의 열정은 승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나라의 믿음직한 체육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 보람찬 투쟁성과로 이어질것이다.

노래속에 꽃피는 정서와 광만

우리 당의 현명한 손길아래 오늘 나라의 도처에는 문화회관들이 훌륭하게 일떠서 근로자들의 문화정서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은 나라가 당창건 65돐을 앞두고 경총분위기로 설레이고 있는날 우리는 회관을 정서적으로 활발히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문화정서활동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평양시 문화회관을 찾았다.

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미담게 바라보며 일군과 함께 문화회관을 찾았다. 그들의 작품지도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미담게 바라보며 일군과 함께 문화회관을 찾았다. 그들의 작품지도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미담게 바라보며 일군과 함께 문화회관을 찾았다. 그들의 작품지도에 여념이 없었다.

평양시 문화회관을 찾았다. 그들의 작품지도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미담게 바라보며 일군과 함께 문화회관을 찾았다. 그들의 작품지도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미담게 바라보며 일군과 함께 문화회관을 찾았다. 그들의 작품지도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미담게 바라보며 일군과 함께 문화회관을 찾았다. 그들의 작품지도에 여념이 없었다.

찾아서... 해마다 시인의 예술소조들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위를 본보기로 선정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공중예술활동을 힘있게 내민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문화회관에 모여 함께 예술소조활동을 벌리는 과정에서도 배우고 경험을 나누니 참 좋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아주신 훌륭한 공장기공예술훈예대담회 이번 공연에서 수도로제공급의 본래를 보게되다고 말하는 평양 326전선공장의 기공예술훈예대의 이야기를 끄며 우리는 무대를 떠났다.

비록 건물은 크지 않아도 시인의 각계층 근로자들의 문화정서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문화회관이었다.

우리 회관마당으로 나왔을 때 그곳에서는 시인의 협동농장에 예술소조원들의 농악무용 공연이 한창이었다. 장세남소리며 맹꽁이, 반고소리에 맞추어 남부농업근로자들이 펼쳐는 춤판은 바라볼수록 어깨춤이 절로 나고 사기가 부쩍부쩍 솟구쳐올랐다. 협동농장에 예술소조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번임없이 높이 추대한 회화행복을 이 농악무에 담고있다. 그 정경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창조의 열정 넘치는 일터

창조... 모든것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던 그때 공장일군들이 제일 먼저 결심하고 달려붙은것이 바로 기술혁신이었다.

생산정상화의 불길은 지퍼는 것으로부터 공장에 창조와 혁신의 숨결이 불어치게 하자는 공장일군들의 결심은 생산시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공장에서는 기술혁신인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생산공정들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특히 원로원칙이 부족한 속에서도 질 좋은 종이를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종이생산방법의 연구도입에 기술혁신의 총화력이 집중되었다.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말로만 강조하여서는 좋은 성과를 거둘수 없다. 일군들이야말로 창고의 명수가 되고 기술혁신의 선구자가 되어 이 사업에 앞장섰다.

그 나날 공장일군들은 전국

를 지니게 되었으며 최근년간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많은 단위를 자랑했다.

그러나 어찌 일터에 대한 이들의 정과 사랑이 깊어지지 않을수 있으며 더 높은 로력적성과로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창조의 열정으로 심장 불타지 않으랴.

한그루 나무, 한대의 설비에 도 바친 땀과 노력이 있고 당일에 대한 꿈과 포부가 넘치는 소중한 일터에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생산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지난해에는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으며 올해에도 당창건 65돐까지 년간계획을 완수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이 시각도 자랑많은 일터의 창조적 동력은 멈출 줄 모른다.

올해공동사실과 공동조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할 이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타는 심장의 박동을 안고서.

본사기자 오철룡... 영웅이 발휘한 투철한 수령력사용위정신을 적극 따라배우고 있다. 리진명 적음



새 기술 소식

새 기술 소식... 하고있으며 다종다양한 발광소자가로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출력백색발광소자의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한편 발광소자조명등의 가격을 대폭 낮추는것이다. 전문가들은 2012년에 가면 백색발광소자의 가격이 일반발광소자 수준에 이를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일반조명을 백색발광소자로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에서 주목되는 점은 무엇보다도 가전이나 사무실에 앞서 공공장소들의 조명을 백색발광소자로 실현하는것이다. 비용에 대한 경제효과를 특별히 중시하는 종합시도사항을 비롯한 상업시설의 간판, 램프 및 램프장전형, 램프조각 및 실내조명을 백색발광소자로 실현하여 발광소자조명의 우월성을 실증

소함량을 크게 낮출수 있다고 한다.

또한 탈산성생물을 빨리 떠오르게 하여 비금속재료물함량을 줄이는것이다. 복합탈산제의 탈산성생물은 녹음성이 최상의 온도보다 낮고 가벼우므로 쇠물속에서 액체방출로 되어 점차 지면서 빨리 떠오른다.

또한 연속조각기 증간남비의 출강구가 매지 않자 하는것이다. 알루미늄출발산제의 탈산성생물인 알루미늄은 녹음성이 높으므로 쇠물속에서 고체알갱이로 떠있으면서 증간남비의 구멍을 점차 메우므로 연속조각할수 있다. 그러나 복합탈산제로 탈산할 때에는 녹음성이 낮은 생생물인 스텝크로 이런 현상이 없다고 한다.

바리움-칼슘복합탈산제는 바리움은 금속공정에 도입되어 고압판, 배아판, 레우, 차바퀴와 저압금속용융기의 질을 현저히 높이고있다고 한다.

총각 김치

총각김치는 어리고 작은 무우를 많이 붙은채로 절여야 담근 김치이다.

총각김치라는 이름은 잎이 붙은채로 있는 무우대加里부문을 상투를 틀지 못한 총각애들의 머리에 비유하여 불리워지기 시작한것이라고 전해온다.

우리 나라의 산간지방은 별방지방보다 추위가 일찍 시작되므로 김장남새를 잘 자를수 없었다고도 이러한 사정은 평양이북지방이 더 심하였다.

그러하여 채 자라지 않은 무우를 수확하여 김치를 담갔는데 그 김치가 바로 총각김치이다.

더운 지방에서는 가을에

김형직선생님께서 1918년 가을에 평양시 동구에서 8경의 하나로서 여기에는 의패적락자들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한 우리 선조들의 애국의 넋이 깃들여있다고 해서 민족자제의 힘으로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명승적으로 이룩한 통군정을 민중의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폭정으로 심한 피해를 입었던 통군정은 전후 우리 당의 민족문화보존정책에 의하여 옛 모습 그대로 복구되었는데 오늘날도 우리 인민의 슬기와 지혜, 뛰어난 건축술과 불타는 애국심을 전해주며 자랑스럽게 서있다.

역사유적 통군정

역사유적 통군정... 시현하고 화려하다. 특히 목재를 적게 쓰면서도 그것이 힘을 많이 받도록 한것이 특이하다.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건축술을 자랑하는 통군정에는 외래적락자들의 침입을 용감히 물리친 우리 인민의 자랑찬 투쟁의 력사가 깃들여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진 혁

진 혁... 통군정은 고려전반기에 처음 세우고 리조시기에 다시 준무정으로서 평안도 의주군 읍에 위치하고있다.

통군정은 고려시기 우리 나라 서북방의 주요군사거점이었던 의주성의 군사위주로 쓰여왔다. 통군정은 의주성에서 제일 높은 삼각산 봉우리에 자리잡고 있는것으로 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군사지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통군정에 올라서면 이기부른 통군정의 옛 성벽이 눈앞에 보이며 아래로는 압록강의 푸른 물가운데에 절정이 떠있는 여러 섬들이 굽어보인다. 서쪽으로는 멀리 신주, 풍양포일대가 바라보이며 남쪽으로는 《의주강산》으로 일러오는 석승산과 백마산일대의 크고작은 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공원을 찾아 로씨야 하바롭스크시장일행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공원을 찾아 6일 알렉산드르 소콜로프 로씨야 하바롭스크시장과 일행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수공예품전람회

여러 나라에서 진행

우리 나라 도서, 사진, 수공예품전람회가 최근 로씨야 라지미르 무르시시에서 항로박물관 하바롭스크변경점 콤포스쿠구역민속문화센터, 페루 리마시 바란코주역전람회장, 우간다전국여성사회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작품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조선로동당의 영광찬란한 력사와

로씨야 하바롭스크시장일행



미국코레아경제연구소 소장일행 귀국

미국코레아경제연구소 소장일행 귀국... 이 6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반조명으로 주목되는 백색발광소자

자료에 의하면 백색발광소자의 발광효율이 황광수준에 오르게 된 오늘 여러 나라들에서 공공장소로부터 가정과 사무실에 이르는 일반조명을 백색발광소자로 실현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지금 백색발광소자는 밝기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은 정현등, 발광조명등에 적용되는 단계로부터 할로겐등을 쓰던 국부조명등,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쓰던 내리조명등, 기본조명등으로 용도가 넓어지고 있다.

최근 백색발광소자 일반조명분야에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것은 우선 발광효율이 높아지면서 전기절약효과가 높았기 때문이다.

2009년에 어느 나라에서 발광소자조명과 관련한 경제성을 분석한데 의하면 형광조명보다 년간 전력소비량

통군정

통군정은 고려전반기에 처음 세우고 리조시기에 다시 준무정으로서 평안도 의주군 읍에 위치하고있다.

통군정은 고려시기 우리 나라 서북방의 주요군사거점이었던 의주성의 군사위주로 쓰여왔다. 통군정은 의주성에서 제일 높은 삼각산 봉우리에 자리잡고 있는것으로 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군사지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통군정에 올라서면 이기부른 통군정의 옛 성벽이 눈앞에 보이며 아래로는 압록강의 푸른 물가운데에 절정이 떠있는 여러 섬들이 굽어보인다. 서쪽으로는 멀리 신주, 풍양포일대가 바라보이며 남쪽으로는 《의주강산》으로 일러오는 석승산과 백마산일대의 크고작은 산

진 혁

진 혁... 통군정은 고려전반기에 처음 세우고 리조시기에 다시 준무정으로서 평안도 의주군 읍에 위치하고있다.

통군정은 고려시기 우리 나라 서북방의 주요군사거점이었던 의주성의 군사위주로 쓰여왔다. 통군정은 의주성에서 제일 높은 삼각산 봉우리에 자리잡고 있는것으로 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군사지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통군정에 올라서면 이기부른 통군정의 옛 성벽이 눈앞에 보이며 아래로는 압록강의 푸른 물가운데에 절정이 떠있는 여러 섬들이 굽어보인다. 서쪽으로는 멀리 신주, 풍양포일대가 바라보이며 남쪽으로는 《의주강산》으로 일러오는 석승산과 백마산일대의 크고작은 산

온 세계의 자주화와 남북협조의 전면적확대발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인류앞에는 지배와 예속, 착취와 착취당하는 민족들 사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여야 할 과업이 성숙된 시대적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오늘 진보적인류앞에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업이 전면에서 나서고있다. 온 세계를 자주화하는 것은 인류공동의 위업이다. 자주화된 세계란 지구상에 서 지배주의, 식민주의가 청산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세계를 말한다. 세계가 자주화되어야 모든 나라 인민들이 지배와 예속에 없고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새 세계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인류공동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온 세계의 자주화는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인류공동의 운명과 밀접히 련결되어있으며 인류사회가 발전할수록 국제적 연관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기에 때문이다. 지난날 인민대중은 오래동안 인간의 사회적규칙치와 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을 단결되지 못함으로 소수 지배계급과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착취와 압박을 받으면서 사회의 주인,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민대중의 자주적

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강화됨으로써 개별적인 나라들안에서나 세계적범위에서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전례없이 높아지게 되었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자면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지배와 예속, 착취와 착취당하는 민족적질서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절실한 요구의 하나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없애버리는것이 온 세계의 자주화를 없애버리는것이 아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남북협조를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남북협조는 온 세계의 자주적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남북협조는 발전도상나라들사이 경제교류와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발전된 나라들에 대한 대항력과 협상력을 키워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데 유리한 국면을 열어 놓을수 있게 한다. 남북협조는 발전도상나라들이 단결하고 협력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착취, 경제적억압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할수 있게 한다.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은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국제적단결과 협조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국제적단결과 협조를 떠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주적의 평등, 오상존중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제적단결과 협조를 강화해나갈

때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지어지게 되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은 더욱 활발한 활동에 의하여 남북협조는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발전되고있다. 그것은 일련의 투쟁을 띠고 진행되고 있다.

그 특징은 첫째로, 남북협조가 다방면적이면서도 폭넓고 심도있게 진행되고있는데 있다. 지난 시기 남북협조는 농업이나 무역 등 제한된 분야에서 진행되었으나, 그것도 소규모적으로 진행되었기 적지 않았다. 그러나 현시기 발전도상나라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강화해나가고있다. 더구나 에너지, 식량, 금융, 환경 등과 관련한 위기들이 개별적인 나라나 지역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세계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조건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은 다방면적이면서도 폭넓고 심도있는 교류와 협조를 통하여 부각되는 난관들을 이겨내며 공동의 발전을 이룩해나가고 있다.

그 특징은 둘째로, 남북협조가 지역발전성으로가 아니라 지역적, 대륙적구체들을 통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되고있는데 있다. 지난날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주의지배하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였다. 독립후에는 오랜 기간에 걸친 제국주의자

들의 식민주의로 인한 경제적착취 후성이 발전도상나라들을 괴롭혔다. 제국주의자들은 넓은 국제경제질서를 리용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 《원조》등을 미끼로 막대한 환물에 의하여 남북협조는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발전되고있다. 이런 체형에서 교훈을 찾은 발전도상나라들은 지역적협조를 강화하고 경제적 통합을 실현하여 사회경제적발전과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주목되는것은 2003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 12월 19일을 《유엔남북협조의 날》로 기념함에 대한 결의를 채택한것이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해마다 《유엔남북협조의 날》을 맞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남북협조와 관련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있다. 국제적으로 기념하는 《유엔남북협조의 날》을 계기로 남북협조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활동은 더욱 활기있게 벌어지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남북협조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데 계속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실천적인 공동행동으로 국제적협조관계에서의 부당한 정치적부대조건들과 일방적인 경제제재 및 봉쇄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미 세계적 공동전선과 동맹관계에 기초하여 무역, 금융, 지속적

발 등과 관련한 남북협상수단들에 서 발전도상나라들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을 보다 조직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남북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것을 일관한 대외정책으로 틀어쥐고 추진시켜나감에 남북협조를 제도화, 기구화하는 과업을 선행시켜 그 효과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여러 국제회의들에서 채택된 남북협조강령과 다채로운 활동을 성실히 리행하며 그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에 토대하여 새로운 대상을 밝히고 실현함으로써 서로의 경제상성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단지적력량의 기지멸에 단결하고 협력하는것이 중요하다.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은 집단적력량의 원칙을 견지할 때 발전된 나라들에 대한 의존성을 버리고 자주성을 확립할수 있다. 남북협조를 확대발전시키려는 세계에 대한 인류의 꿈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군사적충돌, 날로 확대되는 군사비행과 멸종들 사이에 질어가는 새로운 군비경쟁, 오염과 파괴에 초달음치고있는 지구환경, 국제적인 금융, 경제위기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며 남북협조의 전면적확대발전을 가로막는 주되는 요인이다. 발전도

상나라들은 온갖 힘의 사용과 그 위험을 반대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데 주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오늘 시대의 격동적인 선군시대를 다. 정의 총대로 침략과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 자주성을 수호하는 시대 선군시대가.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 당의 선군사상과 선군정치를 본받아 군사를 중시하며 국방건설에 커다란 힘을 돌리고있고 군사적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집단방위안전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만능의 보검이며 필승불패의 기치인 선군사상, 선군정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으며 제국주의 침략세력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 남북협조의 전면적확대발전이 반제투쟁이며 반제투쟁의 승리의 열쇠는 선군에 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지 못하면 남북협조를 확대발전시킬수 없다고. 강요하는 집단지적력량을 가진 사회경제발전도 이룩할수 없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만 제국주의의 그 어떤 침략과 전쟁, 핵도 짓부시고 남북협조를 더 속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다.

21세기는 자주성을 위한 세계 인민들의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역사적변혁의 시대이다. 남북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

의 정의의 투쟁은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발전도상나라들이 모든 잠재력과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남북협조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할 때이다.

21세기 전면적확대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에 들어선 남북협조의 전망은 밝다.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탁월한 사상리론으로 온 세계의 자주화와 남북협조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주제에 관한 문제,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자주적발전을 이룩할때 관한 문제, 반제투쟁의 단결과 편대성을 강화할때 관한 문제, 불력불가담을등을 강화발전시킬때 관한 문제, 남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할때 관한 문제 등 자주성을 기초한 국제관계발전에서 나서는 제반 국제적요구와 과업,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것은 인류의 자주화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으로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위대한 사상과 리론은 21세기는 세계의 자주화와 남북협조의 전면적확대발전의 앞길을 밝히는 휘황한 등대이며 불멸의 기지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와 남북협조의 전면적확대발전을 위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투쟁은 승승장구할 것이다.

김 종 순

호 금 두 총 서 기

국방건설의 빠른 발전을 다그칠데 대해서와 인구조사사업을 잘할데 대해 강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호금두 중앙위원회의 주석이 10월 27일 국방대학 제5차 당대표회 대표들앞에서 한 연설에서 국방대학건설의 빠른 발전을 다그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국방대학이 사상정진철을 첫차리로 놓고 교육과학연구를 중시하는 제반 사업을 착실하게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국방과 근대화건설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새로운 정세에서 국방대학에서는 높은 자질을 갖춘 합동작전지휘인재들을 육성하며 군사리현실의 폭을 넓혀 중국사관가 세 세기, 새로운 단계에서의 역사적사명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또한 중국의 호금두주석이 2일 중남해 회담에서 전국인구조사성원들을 만나 인구조사사업을 잘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국방대학이 사상정진철을 첫차리로 놓고 교육과학연구를 중시하는 제반 사업을 착실하게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국방과 근대화건설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인구조사를 착실하고 인구정보를 정확히 장악하는 것은 당과 정부가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하는데서 기본근거로 되며 경제와 사회의 흥륭하고도 빠른 발전을 추동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그는 과학적인 조사와 법에 의거한 조사를 전제하고 조사인원은 높은 수준에서 질적으로 수행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인구조사를 착실하고 인구정보를 정확히 장악하는 것은 당과 정부가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하는데서 기본근거로 되며 경제와 사회의 흥륭하고도 빠른 발전을 추동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그는 과학적인 조사와 법에 의거한 조사를 전제하고 조사인원은 높은 수준에서 질적으로 수행할것을 요구하였다.

탄 자 니 아 대통령 재 선

탄자니아에서 자카야 음리요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5일 이 나라 전국선거위원회 회가 이에 대해 밝혔다.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2일 한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령강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배격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는 이란인들은 나라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며 자주적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반쿠바봉쇄책동을 단죄.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1일 미국의 반쿠바봉쇄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최근 유엔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책동을 규탄하는 결의가 또다시 채택된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은

총기류 범 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 1일 무장한 범범죄자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무력대고 총질을 하여 4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또한 이날 이 시에서 정계불명의 범범죄자 쏜 총에 맞아 중상자가 발생하였다. 피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러한 총기류범죄는 미국사회의 부패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로 시 아 에서 의 인 구 조 사 사 업

로씨야에서 지난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전국인구조사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2일 한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령강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배격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는 이란인들은 나라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며 자주적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반쿠바봉쇄책동을 단죄.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1일 미국의 반쿠바봉쇄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최근 유엔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책동을 규탄하는 결의가 또다시 채택된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은

총기류 범 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 1일 무장한 범범죄자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무력대고 총질을 하여 4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또한 이날 이 시에서 정계불명의 범범죄자 쏜 총에 맞아 중상자가 발생하였다. 피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러한 총기류범죄는 미국사회의 부패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팔 레 스 리 나 인 수 감 자 들 에 대 한 학 대 행 위 를 폭 로

이스라엘의 한 인권단체가 2일 보고서를 발표하여 팔레스티나인수감자들에 대한 당국의 학대행위를 폭로하였다.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2일 한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령강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배격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는 이란인들은 나라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며 자주적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반쿠바봉쇄책동을 단죄.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1일 미국의 반쿠바봉쇄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최근 유엔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책동을 규탄하는 결의가 또다시 채택된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은

총기류 범 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 1일 무장한 범범죄자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무력대고 총질을 하여 4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또한 이날 이 시에서 정계불명의 범범죄자 쏜 총에 맞아 중상자가 발생하였다. 피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러한 총기류범죄는 미국사회의 부패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심 각 한 어 린 이 민 구 문 제

유럽동맹성원국들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빈궁에 시달리고있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2일 한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령강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배격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는 이란인들은 나라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며 자주적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반쿠바봉쇄책동을 단죄.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1일 미국의 반쿠바봉쇄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최근 유엔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책동을 규탄하는 결의가 또다시 채택된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은

총기류 범 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 1일 무장한 범범죄자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무력대고 총질을 하여 4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또한 이날 이 시에서 정계불명의 범범죄자 쏜 총에 맞아 중상자가 발생하였다. 피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러한 총기류범죄는 미국사회의 부패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영웅렬사들을 그리며 친선을 계승한다

중국의 《인민일보》의 글. 중국의 《인민일보》 10월 26일부터 《영웅렬사들을 그리며 친선을 계승한다》라는 제목으로 평양주제 특파기자의 글을 실었다.

신문을 글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이 되는 10월 25일 중조 두 나라 인민은 승업한 감정을 안고 조선전선에서 희생된 지원군

렬사들을 함께 추모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한 중국 고위군사대표단이 우리에대 환관을 진정한 소식을 전하였다.

신문을 고위군사대표단이 우의팀을 돌아온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60년전 중국인민지원군은 뜨거운 열정과 중조 두 나라 인

미 국 의 반 쿠 바 봉쇄 책 동 을 단 죄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1일 미국의 반쿠바봉쇄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최근 유엔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책동을 규탄하는 결의가 또다시 채택된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은

총기류 범 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 1일 무장한 범범죄자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무력대고 총질을 하여 4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또한 이날 이 시에서 정계불명의 범범죄자 쏜 총에 맞아 중상자가 발생하였다. 피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러한 총기류범죄는 미국사회의 부패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팔 레 스 리 나 인 수 감 자 들 에 대 한 학 대 행 위 를 폭 로

이스라엘의 한 인권단체가 2일 보고서를 발표하여 팔레스티나인수감자들에 대한 당국의 학대행위를 폭로하였다.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2일 한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령강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배격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는 이란인들은 나라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며 자주적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반쿠바봉쇄책동을 단죄.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1일 미국의 반쿠바봉쇄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최근 유엔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책동을 규탄하는 결의가 또다시 채택된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은

【조선중앙통신】

심 각 한 어 린 이 민 구 문 제

유럽동맹성원국들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빈궁에 시달리고있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2일 한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령강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배격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는 이란인들은 나라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며 자주적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반쿠바봉쇄책동을 단죄.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1일 미국의 반쿠바봉쇄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최근 유엔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책동을 규탄하는 결의가 또다시 채택된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은

【조선중앙통신】

경 영 형 편 약 화, 불 가 인 상

일본의 증권업체인 노무라 회사는 최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4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기업에서 리윤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4%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에스빠냐와 프랑스에서 올해 10월에 자동차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37.6%, 18.7% 떨어졌다. 판매량으로 이 나라 자동차 생산업체들에서 경영형편이

자 연 피 해

에 잠기고있는 농작물들이 못 쓰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멘다와이 지역에서 지진에 의한 해일피해가 확대되고있다.

10월 28일 현재 사망자수는 311명으로 늘어났으며 2만여명이 소고되고 수백채의 살림집이 파괴되었다.

미국 중서부지역에서 10월 26일 폭풍이 휩쓸어 피해를 입었다. 폭풍으로 일리노이스, 인디애나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16만명의 주민들이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다. 또한 자동차운행이 마비상태에 빠지고 비행기운행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조성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침 략 자 들 에 게 차 레 지 는 수 치 스 리 운 운 명

의약해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무력행사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참혹한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미국의 전쟁행위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피난민으로 전락하였다. 인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병폐되고 나라는 테러와 무력의 만무장으로 변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을 파괴해야 하는 것을 아시아와 중동지역을 장악하고 세계지배전략실현의 군사적발판으로 삼으려는 야망에 강행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인민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아 갔다. 그러나 인민들의 강한 반발은 이 나라를 아프가니스탄전쟁을 강행한 때로부터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반레조전》으로 시작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전쟁은 군사적강점행사로 합법적인 주권국가들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린 침략자의 강도성과 횡포성이 드러났다. 전쟁기간 미국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전투수단들을 동원하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차별공격과 파괴작전으로 이 나라를 완전히 황폐화시키다시피 하였다.

오래동안에 걸친 반과세력들 사이의 무장충돌은 하루이 끼

미 국 의 반 쿠 바 봉쇄 책 동 을 단 죄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1일 미국의 반쿠바봉쇄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최근 유엔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책동을 규탄하는 결의가 또다시 채택된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은

총기류 범 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 1일 무장한 범범죄자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무력대고 총질을 하여 4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또한 이날 이 시에서 정계불명의 범범죄자 쏜 총에 맞아 중상자가 발생하였다. 피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러한 총기류범죄는 미국사회의 부패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팔 레 스 리 나 인 수 감 자 들 에 대 한 학 대 행 위 를 폭 로

이스라엘의 한 인권단체가 2일 보고서를 발표하여 팔레스티나인수감자들에 대한 당국의 학대행위를 폭로하였다.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2일 한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령강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배격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는 이란인들은 나라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며 자주적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반쿠바봉쇄책동을 단죄.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1일 미국의 반쿠바봉쇄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최근 유엔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책동을 규탄하는 결의가 또다시 채택된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은

【조선중앙통신】

심 각 한 어 린 이 민 구 문 제

유럽동맹성원국들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빈궁에 시달리고있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2일 한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령강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배격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는 이란인들은 나라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며 자주적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반쿠바봉쇄책동을 단죄.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1일 미국의 반쿠바봉쇄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최근 유엔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책동을 규탄하는 결의가 또다시 채택된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은

【조선중앙통신】